



대학주보

의대생 단체행동 중단…국시 응시는 ‘불투명’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한 달여 단체행동 중단

예1~본3 복학 줄이어

본4 국시 응시 불투명

전국 40개 의과대학(의대) 학생들이 동맹휴학과 국가고시(국시) 응시 거부를 비롯한 단체행동의 중단을 선언했다. 우리학교 의대 학생들도 제출한 휴학계를 철회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 협회(의대협)에서 단체행동을 시작한지 30일 만이다.

의대협은 14일 성명문을 내고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의 목표를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 상설 감시기구는 의대협이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발족시킨 기구로, 정부와 국회의 의정합의의 행여부를 감시하며, 지역의료 불균형 등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여당과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확대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이룬 과정은 유감이지만, 우리의 실망보다는 더 나은 의료와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 판단했다”며 “숙의 끝에 선배 의료인과 합심해 의정 합

의문의 성실한 이행을 지켜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행동 중단이 우리의 연대가 멈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다시금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강행된다면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협에서 단체행동 중단을 선언한 14일, 이의주(의학 2017) 의대 학생회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지금까지 휴학 취소를 신청한) 470명의 휴학 취소 승인이 완료됐다”며, “휴학 취소자는 내일(15일)부터 e-campus에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협은 지난달 16일 국시 응시 거부를 의결했으며, 다음날인 17일 전국 40개 의대의 동맹휴학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4,090여명의 의대 학생들이 동맹휴학에 참여했으며, 2,820여명의 국시 응시자들이 국시 응시 거부에 나섰다. 우리학교에서 휴학계를 낸 학생은 지난달 31일 기준 521명(의대 정원 528명), 국시 응시를 거부한 학생은 89명(국시 응시 정원 95명)에 달했다.

동맹휴학에 나섰던 우리학교 예과 1학년 학생부터 본과 3학년 학생은 휴학계를 철회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준구 의대 행정계장은 “지금(14일)도 의



지난 14일 ‘전국의사 총파업 결기대회’에 참여한 의과대학 학생들과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시위참여자 제공)

대 학생들의 휴학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의대 행정실은 학생들의 휴학 취소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승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을 때 수업

운영은 1학기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과 4학년 학생들이 국시에 응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가 주관 시험에서 수험생

들이 응시를 거부한 후 응시 접수기간이 지난 다음 재응시를 허용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국시만 재응시를 허용할 경우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불가피하다.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 국민적 동의를 얻는 일 역시 쉽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18일 21시 기준 56만 8천여 명이 동의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4일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국시를 거부한 상황에서 추가 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국시는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 국시의 추가 기회 부여는 국시를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국시의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대협도 ‘단체행동 중단’이 국시를 응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국시 응시 거부를 포함한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건 맞지만, 지금 국시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재응시 뜻을 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합동 온라인 대동제 논란 끝에 취소

장혜림 기자 vicky21524@khu.ac.kr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 합동 온라인 대동제(온라인 대동제)’가 결국 취소됐다. 총학생회(총학)가 온라인 대동제 시행 여부를 두고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당초 총학은 지난 2일 SNS를 통해 “교내 대면행사 전면금지 원칙

에 따라 온라인 대동제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리타임’ 등을 통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대면 방식의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총학은 10일 온라인 대동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축제 개최 여부와 관련해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온라인 대동제 개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총 1,808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총학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서 약 65.5%의 학생들이 온라인 대동제 개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제 계획을’ 수정 후에 시행하자’는 학생들이 약 21.5%, 개최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약 13%로 집계됐다. 공동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모두 ‘진행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유일하게 서울캠퍼스의 개별 프로그램인 ‘사

자! 마켓’이 약 57.4%의 찬성을 기록해 학생들의 지지를 얻었다.

대동제 개최를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자, 양캠퍼스 총학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학우 여러분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축제는 기획하는 총학도, 이를 지켜보는 학우들에게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대동제는 진행하지 않겠다”며 축제 취소 사실을 알렸다.

일각에 존재하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축제에 들어갈 비용을 아껴 등록금 반환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불가하

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은 “교비에 해당하는 온라인 대동제 예산은 미집행 시에도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는다”며 “대학본부로부터 ‘축제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록금 반환액에 넣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령

명 〈서울뉴스팀장〉
김정호(언론정보학 2019)
〈미디어팀장〉
박혜림(원예생명공학 2017)